

우즈베키스탄에 케이-젯소 수정란·실증사업 착수

농진청, 본청서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업무협약 맺고 협력체계 가동

한국산 낙농 기술과 농기자재 묶음(패키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증단지(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다.

농진청은 지난 1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K)-농업기술 활용 해외 진출 모형'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진청 기술협력국 김용국 국장을 비롯,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 누르마트프 아잠존 아크바르비치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진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형 우량 젯소 생애 전 주기 정보(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첫 사업 대상국은 낙농산업 비중은 크지만 기술이 낙후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구축한 사업 기반(협력 농장, 정부 연결망 등)을 국내 농산업체가 수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은 농진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형 농기자재를 생애 단계별로 실증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해 인근 국가로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내 낙농 관련 5개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로 참여해 한국형 젯소 수정란(주)제네시스, 젯소 발생동기화 호르몬제(주)동방, 송아지 백신(녹

십자수의약품(주)), 소 첨가제(우진비앤지(주))를 실증하게 된다.

이들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은 묶음(패키지) 기술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는 △자국 축산환경에 적합한 질병 관리 기술 실증 △가축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강화 △ 기자재 반입 정부 임시 허가 △선도 농장 발굴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 누르마트프 아잠존 아크바르비치 소장은 "이번 실증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양국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즈베키스탄 축산기술이 진일보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농협과 농협 전주시지부가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 전주시 삼천동 및 덕진동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복숭아 적과 작업 도우며 구슬땀

전주농협-농협 전주시지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펼쳐

전주농협과 농협 전주시지부가 영농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 전주시 삼천동 및 덕진동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이날 전주농협, 농협전주시지부, 전북농협 임직원 40여명은 햇빛이 따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가와 함께 복숭아 수확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박모씨는 "농촌 고령화와 영농가능인력 부족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도 너무 높다"면서, "이렇게 농협 직원

들이 찾아와 작업에 도움을 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하양진 지부장은 "영농철 농촌일손돕기에 많은 기관단체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농협전주시지부는 앞으로도 적기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해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의 '트럼프 시대' 따른 기업 대응전략 교육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기업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시대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AI 산업 및 주식·채권·상품시장에 대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협의요청권 필요성·입법시 고려사항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협의요청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 검토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성 등 협의요청권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존 법·제도를 중심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자에게 '동등한 지위 보장과 균형적 거래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협상(협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곤란하며, 협동조합을 통한 대항력 제고는 오히려 경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제2대 국회에서 제언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협의요청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토론회에서는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경만(前)국회의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부회장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길 한국박산산업협동조합 이사 등 토론회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남주 변호사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요청권은 중소기업의 근본적 상황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지침을 충실히 준수

한 사이트에 한해 부여되며, 해당 인증은 전문 평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급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누구나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환경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웹사이트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웹 접근성 인증 획득은 정보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격오지 재난 예방, 청년자율방재단 참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도서지역 설비 개선... 해양 환경정화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전남 여수시 금오읍 일대에서 '도서지역 전기설비 개선·방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함께한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 등은 금오도 내부 노후 주택의 LED 전등과 전선·차단기 등 설비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최초로 공사가 창단한 전주시 청년 자율방재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 환경정화 활동과 여름철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에 나섰다.

청년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전북 완주군 집중호우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서

등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령화가 심각한 지역에 청년 인력을 투입해 지역의 활력을 더하자는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정부는 현재 이 사업의 전국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최근 재난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요인을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특히 재난 발생 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의 설비 개선은 실질적인 재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도서·산간지역의 전기안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 밀착형 설비의 선제적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 방재 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